

광주비엔날레 “유럽의 시선을 잡아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본격적인 해외홍보전에 나섰다. 재단은 오는 5일부터 이탈리아 베니스와 밀라노, 스위스 바젤 등지에서 유럽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이벤트를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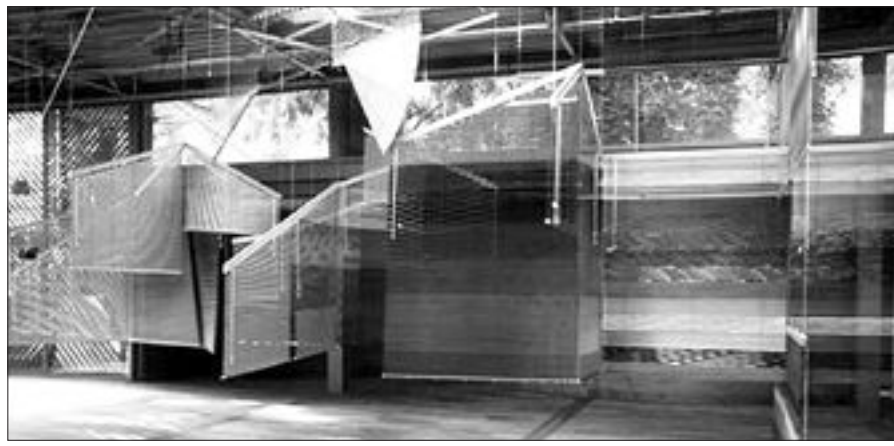
최근 비엔날레와 아트페어 등 200여개의 미술 행사가 열리고 있어 세계 각국은 관광객 유치를 놓고 ‘홍성 없는 홍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은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5일·이하 디자인비엔날레)를 앞두고 발 빠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재단은 전문가 설명회와 해외 미술 잡지 광고 게재,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해외홍보에 승부한다.

6월은 전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유럽으로 쏠리는 달이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7일부터 세계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 잔치인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작된다. 53회째인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는 77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재단은 오는 6일 8회광주비엔날레(2010년 9월3일~11월7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 은병수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이용우 상임부이사장, 김은영 정책실장, 해외

베니스·밀라노·바젤서 대대적 홍보 펼쳐 프랑수아 직원 채용·해외 온라인 광고도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유럽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전시되는 양혜규의 설치작 ‘일련의 다지기 쉬운 바늘·목소리와 비름’.

의 홍보 에이전트인 독일의 마크 뮐러 등을 베니스로 보내 광주를 알린다. 이들은 프레오프과 개막식 등에 참여해 전시장 안팎에서 세계 미술인들에게 광주

를 소개하게 된다. 오는 5일에는 홍보리셉션도 개최한다. 홍보리셉션에 2008 브뤼셀비엔날레 바바라 반데리엔 총감독 등 미술 전문가와 'art-

net’ 애너 편집장 등 세계 주요 미술매체 언론인 30여명을 초청해 바람돌이에 나선다.

오는 8일에는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서 디자인비엔날레 홍보설명회를 갖는다. 이탈리아 패션, 디자인 관련 언론인들을 초청해 이번 행사를 알릴 계획이다.

또 9~12일까지는 장소를 스위스로 옮겨 40년 전통의 바젤 아트페어에서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홍보하게 된다.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바젤 아트페어는 미국 75곳, 독일 56곳, 스위스 33곳, 영국 28곳, 프랑스 26곳, 이탈리아 26곳 등 29개국의 대표적 화랑 300여곳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 밖에 본격적인 해외 광고도 시작했다. 인터넷 디자인 사이트 ‘core77’ ‘e-flux’와 디자인 전문잡지인 ‘domus’ ‘interni’ 등에 광고를 게재, 관광객을 유치하는 복안이다.

재단은 또 프랑스예술진흥협회 예술분과 담당을 역임한 오렐리외와 강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외감은 해외 작가 관리 등의 업무를 맡지만 모국어인 불어를 비롯해 영어, 스페인어 등 5개국어를 구사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뷰 - 창작발레 ‘명성황후’

‘국악+발레’ 참신한 어울림

조명 등 아쉬움도

지난달 29·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내린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의 창작 발레 ‘명성황후’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작품이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국악관현악과 발레의 만남으로 공연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명성황후’는 발레와 국악의 어울림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전례가 없던 터라 가장 서양적인 장르인 발레와 한국적인 장르인 국악이 결합해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낼지 미지수였던 게 사실. 두 장르를 엮어본 결과 두 장르의 결합은 의외로 훌륭했다.

무과시험 장면, 명성황후 시해 장면 등에서 선보인 화려하고 강렬한 음악과 안무도 좋았지만, 사기로 퍼진 명성황후가 고종을 그리는 대목 등 애달픈 감정을 전하는 대목에서 어수룩한 애절한 음악과 무용수들의 연기는 감정을 자극하며 감정을 극대화시켰다.

안무 역시 한국적 춤사위가 가미된 동작으로 국악관현악과 잘 어울렸으며 무대 디자인과 장치 등도 기존의 무용단 작품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시도들로 눈길을 끌었다. 국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 할 수 있는 명성황후 시해 장면의 경우 임팩트가 부

족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그림자와 빛을 활용한 연출은 참신했다.

15분(쉬는 시간 포함)에 이르는 러닝타임은 압축이 필요할 듯하다. 혼례식 장면 등 1막이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었으며 특히 무과시험 장면엔 태권도부를 기용해 춤과 태권도가 어우러진 안무 등을 선보인 것은 참신했지만 지나치게 길어 국의 흐름을 단절시켰다.

가장 아쉬운 것은 조명이었다. 최근 무대에 올리는 대형 작품들의 성공 여부가 ‘조명’에 달려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두워 분위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은 문제였다.

1부에서는 매 신마다 조명이 너무 빨리 꺼져 무용수들의 동작에 대한 어운을 즐길 새가 없었으며 특히 2막 2장의 경우 자객 이노우에의 격렬한 춤은 거의 보이지 않아 명성황후의 시해가 일방적으로 관객들이 갖게되는 긴장감을 전혀 전달하지 못했다.

또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막기를 한쪽 벽에만 설치, 일부 관객들이 극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점도 아쉬웠다.

한편 무용단측은 이번 공연을 관련한 작곡가와 상의, 음악 부분을 수정하고 안무 등도 계속 버제업해 광주 대표 작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관에서 연주하니 색다른 느낌”

광주극장 공연, 프랑스 첼리스트 보그다노비치·피아니스트 벨루소바

“어린 학생 관객들이 많았는데 주의 깊게 연주를 지켜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극장에서 연주회를 가진 프랑스 첼리스트 마야 보그다노비치와 피아니스트 마리아 벨루소바는 “파리에선 오리지널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이다”며 “영화관에서의 공연은 일반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것과는 색다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연주회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사장조’ 등을 연주 극장을 찾은 500여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마야 보그다노비치는 “정식 공연장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관객들과 호흡한다는 점에서 연주자에게 모든 무대는 다 똑같다”고 말했다.

피아노를 연주한 마리아 벨루소바는 이날 유연히 극장 옆 한복의 거리에 갔다가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녀는 “아름답고 화려한 색깔과 문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딸 아이 두명의 한복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광주프랑스문화원과 광주극장이 함께 마련한 행사로 첼로연주회에 이어 영화 ‘비지터’ 상영이 계속됐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프랑스 문화원 산하 기관인 한국알리앙스프랑세즈 대표 마크 사라장도 함께 했다. 마크 사라장은 서울의 다른 멀티플렉스와 달리 광주극장은 오래된



지난달 30일 광주극장에서 연주회를 가진 첼리스트 마야 보그다노비치, 한국알리앙스프랑세즈 대표 마크 사라장, 피아니스트 마리아 벨루소바. (사진 왼쪽부터)

공간이라 역사가 느껴지고 공간도 넓어 인상적이었다”며 “문화원은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 문화 기관들과 좀 더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프랑스 문화 100년 기념 전시’와 프랑스 건축 등 광주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사회 미술인의 ‘생존’ 롯데화랑 'Survival kit'전

광주롯데화랑은 오는 10일까지 ‘Survival kit’전을 갖는다. 초대작가는 고재근, 박수만, 박형규, 안정, 윤남용, 임남진, 전현숙, 조승기, 최선, 최요안혜 등이다.

이들은 구호용품에 의미를 ‘Survival kit’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미술인의 위치와 ‘생존’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조승기씨는 한 해에 100만원도 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삶을 담은 ‘숨, 100’을 통해 부부의 힘겨운 일상을 표현했다. 또 박수만씨는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게 힘겨운 작가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P씨의 하루’를 출품했다. 축구시합을 하는 인물들이 수선스럽게 그려온드를 메우고 있는 모습에는 작가의 고단함이 투영돼 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민과 함께하는 시 낭송회

4일 광주지하철 상무역

광주시낭송가회(회장 이미영)가 오는 4일 오후 6시30분 광주지하철 상무역 상설무대에서 ‘제8회 빛고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를 연다. ‘태양이 꽃을 물들이다 시(詩)는 우리의

마음을 물들인다’라는 주제로 문학동인 ‘자미연’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양봉모씨 사회로 진행되며 이국환(시인)씨의 기타연주와 함께해 푸르며 무성한 초여름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슈자, 이기환, 손덕순, 박주삼, 박형자, 방영남, 주경숙, 김현숙, 이슬아, 장진규, 양석승, 이미영씨가 나서 아름다운 시를 낭송한다. 문의 010-3666-30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장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광주	동광동	380/380	844㎡	4억 4천 800만 원
	서광동	331/731	814㎡	4억 8천 200만 원
	남광동	222/508	394㎡	1억 9천 200만 원
	북광동	176/940	494㎡	2억 2천 200만 원
	동광동	130/220	196㎡	7천 900만 원
대구	동대구	881/2877	2294㎡	14억 1천 100만 원
	서대구	185/410	394㎡	1억 9천 100만 원
	북대구	220/370	294㎡	1억 7천 300만 원
	남대구	137/238	194㎡	1억 3천 200만 원
	동대구	38	91㎡	6천 100만 원
부산	동부산	298/1058	914㎡	3억 2천 200만 원
	서부산	198/488	1977㎡	1억 2천 200만 원
	남부산	130	1977㎡	7천 700만 원
	북부산	57	246㎡	6천 500만 원
	동부산	88(중동)	71㎡	3천 500만 원
서울	동서울	488/1037	814㎡	5억 2천 200만 원
	서서울	581(중)	194㎡	6천 700만 원
	남서울	127	917㎡	3억 2천 200만 원
	북서울	360	4972㎡	2억 9천 200만 원
	동서울	1388/420	117	2억 9천 200만 원